

創刊號를 펴내면서

國立大學圖書館協會가 創設된지 지난 2月8日로 어언 20年이 지났다. 그동안 社會의 諸般與件과 教育環境도 크게 變化하였으며 大學圖書館도 大學의 量的인 팽창과 더불어 諸般施設이나 規模 또는 奉仕面에서도 많은 發展을 거듭하여 왔다.

本協會가 1963年 創設以末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發展을 위해 衆知를 모아 努力하여 그야말로 알뜰하고 內實있는 相互協力網으로서의 훌륭한 役割을 다해왔으며 大學의 研究活動과 圖書館業務의 標準化에도 기여한바 至大하다고 자부한다. 또한 여러차례의 司書職에 대한 實務研修를 實施하고 實務에 관한 구체적 문제점을 討議하기 위한 實務者세미나 開催, 業務의 標準化를 위한 便覽의 發刊, 資料交換 및 圖書館運營에 관한 改善 方案의 建議등 圖書館發展과 國立大學圖書館의 共通된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해왔다.

그러나 本人은 평소 이러한 協會의 諸般活動에 만족해 하면서도 아직 까지 會誌가 없다는 事實에 대하여 항상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다.

大學圖書館에는 圖書館의 一般의 機能이라고하는 奉仕以外에도 教育 및 研究의 機能이 있어서 그 奉仕内容中에는 業務自體가 직접 調査하고 研究하지 않으면 奉仕할수 없는 特殊性이 있는것도 있어서 恒常 能動的으로 觀察하고 解決하려는 研究的 態度와 積極的인 參與意識이 要求되는 것이다.

따라서 日常業務에서 얻어지는 값진 經驗과 擔當業務에 대한 創意的 研究結果등을 記錄으로 남김으로써 다른 동료나 後代에 까지 傳授하여 發展의 業務改善과 보다 效率的인 圖書館 奉仕를 기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圖書館의 日常業務에서 蓄積되는 값진 經驗들은 산 知識으로서 圖書館學의 貴重한 研究素材가 된다는 점에서도 큰 意義가 있다고 본다.

晩時之歎이 있기는 하지만 協會 創設 20週年을 맞이하여 會誌를 發刊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本會誌가 大學圖書館人들의 創意的 研究와 體驗을 發表하는 場으로서 充實한 구실을 다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이 會誌는 우리들 모두의 共有財産이므로 모두가 積極的으로 參與하고 育成하여 司書職들의 研究心과 勤務意慾을 북돋우고 資質向上과 能力開發을 圖模하며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기를 祈願하는 바이다.

初創期이고 또 財政上的 문제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未備한 點이 적지 않으나 점차로 보아 훌륭한 會誌가 될수있도록 努力할것을 다짐하며 이 會誌가 나오기까지 獻身的 努力를 아끼지 않은 編輯委員 諸位와 인쇄를 맡아주신 廣인사인쇄소의 한 상운社長께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1983. 6. 29.

國立大學 圖書館協議會

會長 李 榮 基